

# 세종대왕께 죄스럽지 않은가

유창준 · 편집국장 chang@print.or.kr

지난 10월 9일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지어 세상에 알린 지 556돌이 되는 한글날이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이라는 우리말 한글 탄생을 기념하는 올 한글날에는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한글글꼴짓 대회, 외국인 한글글씨쓰기 대회, 한글 글꼴 공모전, 한글 춤공연, 훈민정음 목판인쇄체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글을 두고도 외래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외래어를 많이 써야 소위 식자층으로 오인되는 경향까지 있다.

특히 건설, 광산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외래어는 얼마든지 우리말화가 가능한데도 여전히 고쳐질 기미가 없다. 일본말 등 일부 용어는 우리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쇄업계도 외래어 사용이 타 업종에 비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올 한글날을 보내면서 건설업계가 외래어 청산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시마이, 노가다 등 일본어 몰아내자”라는 구호도 내 걸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을 인쇄해 건설단체 등 공공·유관기관 등에 배포했고 ‘건설용어 올바른 우리말로’를 주제로 한 스티커 1만여장도 제작했다.

## 외래어 사용은 습관

인쇄업계의 현실은 어떤가.우리 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때 상징물로 기증한 것은 최초의 한글 인쇄 동판인 월인천강지곡이었다. 또한 1377년 청주에서 금속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을 만들어 우리는 유네스코로부터 인쇄종주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751년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목판으로 인쇄하기도 했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은 뒤로 하더라도 한글을 가장 아끼고 전파해야 할 주체는 바로 인쇄업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쇄현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외래어 우리말 사용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우리의 인쇄현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외래어 우리말 사용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쉽고 친근한 우리말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외래어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제의 강점기간을 거치면서 일본용어가 침투하였는데 그 잔재가 해방 반세기가 훨씬 넘었음에도 아직 우리의 인쇄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 이는 인쇄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조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쉽고 친근한 우리말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외래어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제의 강점기간을 거치면서 일본용어가 침투하였는데 그 잔재가 해방 반세기가 훨씬 넘었음에도 아직 우리의 인쇄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 이는 인쇄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조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 인쇄단체에서 인쇄용어 순화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얼마전부터는 50여명의 인쇄인들이 '인쇄용어 우리말 운동본부'라는 계몽 단체를 발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인쇄현장의 외래어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근대인쇄기술이 일본과 서양에서 도입되다 보니 외래어 사용이 불가피했던 점도 있으나 '우리말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용어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은 인쇄종사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지식 정보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인쇄업계가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외래어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인쇄종주국의 영예를 지키고 정보산업을 리드한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인쇄현장의 관리자들부터 솔선 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쇄단체들도 형식적인 계몽과 홍보활동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달 몇개씩 순화용어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 뜻있는 인쇄인들이 조직한 '인쇄용어 우리말운동본부'의 활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인쇄관련인 모두의 협력도 필요하다. 당장 오늘부터 인쇄현장의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 쓰는 운동을 전개해 보자. 한달에 하나씩만 선정해서 고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우리 것이 없는 세계화는 무의미하다.